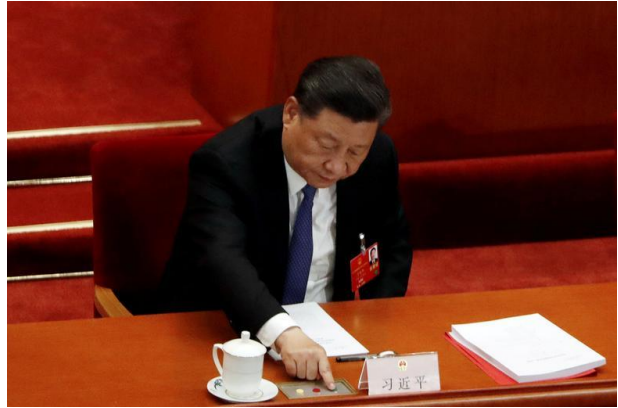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사랑 받지 못하는 랠리..월가가 떨고 있다
 - ◇ (칼럼)-효과 논란에도 추가 인하 선택한 금통위, 양적완화로 가나
 - ◇ (초점)-강해지는 원화 · 위안화 연결고리.. 전방위 경계 신호 보내는 당국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로이터/카를로스 가르시아 롤린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5월2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38.5	-0.1%	-6.6%	-3.5%	유로	1.1098	1.8%	-1.0%	-2.3%
100엔 대비	1,142.1	0.9%	-7.0%	-4.4%	엔	107.77	-0.1%	0.8%	0.9%
유로 대비	1,366.7	-1.1%	-5.3%	-1.3%	위안	7.1447	-0.4%	-2.5%	-1.3%
위안 대비	172.48	0.8%	-3.9%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5,383.11	3.8%	-11.1%	22.3%
코스피	2,029.60	3.0%	-7.6%	7.7%	나스닥	9,489.87	1.8%	5.8%	35.2%
코스닥	713.68	0.7%	6.5%	-0.9%	S&P500	3,044.31	3.0%	-5.8%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476.26	3.0%	-13.8%	15.8%
국고채 3Y	0.826%	-1.1bp	-53.4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097%	1.5bp	-38.3bp	-40.4bp	미국채 2Y	0.164%	-0.5bp	-139.7bp	-93.7bp
국고채10Y	1.374%	2.7bp	-30.9bp	-26.5bp	미국채 10Y	0.653%	-0.5bp	-125.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5.49	6.7%	-41.9%	34.5%	한국 5Y	26.2bp	-0.2bp	5.2bp	-17.0bp
금(현물)	1,726.30	-0.4%	13.8%	18.3%	일본 5Y	38.0bp	0.0bp	20.3bp	-4.0bp
TR상품지수	2,164.61	-0.1%	-12.9%	4.8%	중국 5Y	53.8bp	2.0bp	23.2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6월 1일(월)>

- 산업부, 5월 수출입 동향(09:00)
- IHS 마켓, 한국 5월 제조업 PMI(09:30)
- 기재부, 당정협의(07:30),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16:30)
- 한은, 1/4 분기중 주요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투자 동향(12:00)
- 청와대, 제 6차 비상경제회의(14:00)

<2일(화)>

- 한은, 1/4 분기 국민소득 수정치(08:00)
-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통계청, 5월 소비자물가 동향(08:00)
- 금감원, 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12:00)
- 한은, 5.14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3일(수)>

- 한은, 5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4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기재부, 부총리 현안점검조정회의(14:00)
- 국무회의, 2020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16:00)

<4일(목)>

- 한은, 4월 국제수지(잠정)(08:00)

<5일(금)>

- 국회, 개원식(14:00)

<7일(일)>

- KDI 경제동향(12:00)
- 금융위,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예고(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6월 1일(월)>

- 일본, 5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09:30)
- 중국, 5월 차이신 제조업 PMI 최종 (10:45)
- 유로존, 5월 마켓 제조업 PMI (17:00)
- 미국, 5월 자동차판매 (22:00)
- 미국, 5월 마켓 제조업 PMI (22:45)
- 미국, 5월 ISM 제조업 PMI 최종 (23:00)
- 미국, 4월 건설지출 (23:00)
- 독일, 호주, 뉴질랜드 휴장

<2일(화)>

- 미국, 4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2:45)

<3일(수)>

- 미국, 연방준비제도 1분기 자금흐름 보고서 (01:00)
- 중국, 5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5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17:00)
- 유로존, 4월 생산자 물가 MM (18:00)
- 유로존, 4월 실업률(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5월 ADP 전국 고용동향 (21:15)
- 미국, 5월 마켓 서비스업 PMI 최종 (22:45)
- 미국, 5월 ISM 비제조업 PMI (23:00)
- 미국, 4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23:00)
- 미국, 4월 공장주문 (23:00)

<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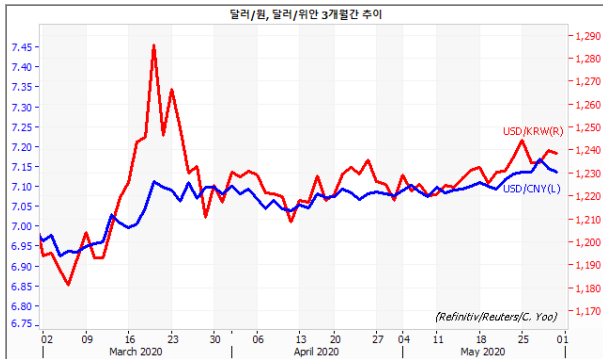
- 유로존, 4월 소매판매 MM (18:00)
- 미국, 5월 챌린저 해고건수 (2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유로존, 6월 유럽중앙은행 리파이낸싱 금리 (20:45)
-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회 통화정책 회의 결과 발표(20:45) 및 기자회견(21:30)

<5일(금)>

- 일본, 4월 가계대출 (08:30)
- 일본, 4월 동행·선행 지수 (14:00)
- 미국, 5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21:30)
- 미국, 5월 실업률 (21: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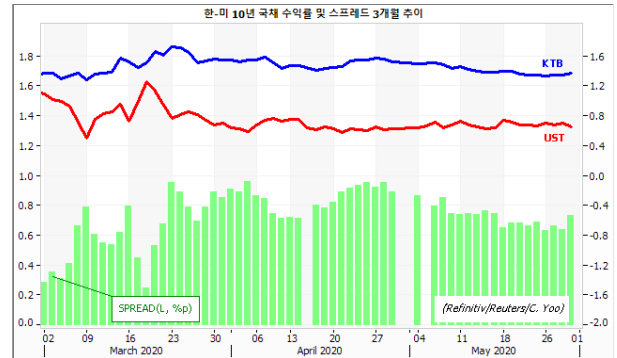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상승 압력이 다소 약화한 가운데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25-1245** 원이다.
- 경제 회복 기대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증시가 강한 회복력을 나타내는 등 투자심리는 웬만한 악재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양새다.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와 이에 따른 미국의 제재 방안까지 나오며 단기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된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단적인 리스크 오프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작아졌다.
- 위안화 약세 압력도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화 또한 이같은 흐름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1일 발표될 5월 수출입 잠정치들 통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의 타이트한 외환시장 수급 여건을 볼 때 달러/원 하단이 크게 되밀릴 가능성도 작다.
- 물론 국내 증시에서 외인 주식 매수세가 재개된다면 수급 압박이 다소 완화하겠지만, 그런 변화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 미-중 갈등을 격화시킬 추가 요인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상·하단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좁은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격화하는 미-중 마찰과 국고채 공급 부담 등이 가장 큰 재료로 부각되는 가운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주초에는 국고채 30년물 입찰 부담이 반영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주 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고채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담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한은도 결국 국채매입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장 인식 등을 감안하면 밀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오히려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받고 있는 코스피지수의 조정을 촉발한다면 채권 매수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 미국 흑인 남성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외 증시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사랑 받지 못하는 랠리..월가가 떨고 있다

(로이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황폐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수 십년 이상 지속된 지난 강세장에서 드러났던 투자자들과 미국 주식과의 애증 관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S&P500 지수는 3월 저점에서 34%나 급등했고 나스닥종합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단 6% 하회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전보다도 더 비관적이며 실업률, GDP 등 주요 지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장 수익률과 투자 심리의 이러한 이분법은 코로나 19 이전 시기에 투자자들을 지배했던 생각인 "대안이 없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당시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례없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부진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와 미국 경제의 상대적 강세로 인해 미국 주식으로 몰려들었다.

이러한 역동성은 요즘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장 지원 및 투자자 신뢰 구축을 위해 수 조억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고 전례없는 범위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양책이 너무 많으며 더 많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많은 투자기관들이 시장 상승에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도 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68%가 월스트리트의 최근 랠리는 더 큰 침체기 속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의 현금보유수준은 5.7%이며, 10년 평균 4.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며 "약세장 랠리 후반의

반사적 버블을 추구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 리스크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보통 주식을 소유하기 보다는 옵션을 사용하여 가격이 떨어진 주식의 잠재 효과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비전문 투자자들도 경계하고 있다. 소매 증권거래 중개 부문에서는 최근 신규 계좌가 급증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나타내는 투자심리 지표인 TD 아메리트레이드 IMX는 지난 4월 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비관적인 시기를 투자하기 적절한 순간으로 보기도 한다.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S&P가 400% 상승한 11년의 기간 동안에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몇주간 시장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주식에 대한 균형추로 여겨지는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리퍼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한 주간 미국 국내 주식형 유추얼 펀드는 29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고, 과세형 채권 펀드에는 약 80억달러가 유입됐다. 시장이 반등하면서 금값은 상승세로 돌아섰고, 또 다른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는 5월 6일 이후 달러 대비 1.6% 강세를 보였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초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랠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현재 얼마나 빠르게 시장이 저점에서 반등했는지,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

고 앞으로의 수익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다른 부문은 무시한 채 월가의 거대 기업 배팅을 선택하면서, 위험심리가 사그라질 경우 빠르게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구글의 알파벳은 지난 3월 분기에 7분기 연속 헤지펀드 선정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3월 이후 월가의 전반적인 회복세에서 거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S&P500 지수는 현재 2월 최고치에서 12% 하락하는 데 그친데 반면, S&P500 종목 중 약 5분의 1은 30% 이상 하락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약세에 대해 낙관적이다. 댄 모건 시노버스 트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엔디비아 주식을 사들였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 엔디비아의 데이터 센터 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하반기에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 뒤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며 "다른 이들의 비관적 전망이 오히려 내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말했다.

(칼럼)-효과 논란에도 추가 인하 선택한 금통위, 양적완화로 가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25bp 인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 임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금통위, 효과 논란에도 추가 인하 선택

코로나 19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만큼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순리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뤄진다고 볼 때 효과 측면에선 5월보다는 7월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7월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주는 게 오히려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6월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과 3차 추가경정 예산 관련 국채 발행 확대 이슈가 채권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만큼 '5월에 인하하고 기다리자'보다는 '7월에 인하할 테니 기다려라'가 시장의 쏠림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돌이켜 보면 이 논리는 2월에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내놓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었는데도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당시 판단의 배경에는 2월에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국 3월 이후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2월에 굳이 '총알'을 낭비하지 말고 3월 장세를 본 후 4월에 기준금리를 인하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금통위 내에 지배적이었다.

물론 이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이후의 금융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2월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해도 국내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한은의 경제 전망보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고, 결국 4월이 아니라 3월에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으로 갔다.

한은의 통화정책 여력에는 한계가 있고, 한은이 전통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통상적인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서 2월 결정이 내려졌지만, 3월 이후 전대미문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근본적인 전제가 바뀐 것이다.

2월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3월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면 어땠을까? 이후의 상황을 지켜 보며 금통위원들 입장에서 이 가정을 두고두고 곱씹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양적완화 길로 나서는 韓 통화당국

지난 13일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OCR)를 0.25%로 유지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금융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75bp 전격 인하하면서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시행 가능성을 시사한 나라다.

이날 뉴질랜드의 선택이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나라가 주요국 가운데 신종 코로나 19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코로나 19 확진자도 1천 명대에서 추가 확산을 제어하는 데 성공한 데다 18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나라다.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물경제의 시험은 이제 곧 시작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는 양적완화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게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조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

를 막을 수 있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대규모 재정 투입이라는 이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들을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금통위 역시 이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도 6월 물량 때문에 채권 시장이 더 강해지지 못하고 밀린다면 그때 또 한은이 움직일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길을 가는 걸 한은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추경이 예고되는 현시점에 단순한 단순매입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적 완화 선언과 국채 매입 역시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어쩌면 한은도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같은 수순을 걸을지 모르겠다. 이미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 설치 지원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려야 한다는 논리가 일단은 작용했다.

6월에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의 협조하에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지만 향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점)-강해지는 원화·위안화 연결고리..전방위 경제 신호 보내는 당국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 변동성이 확대되는 조짐 속에 연이틀 외환당국 수장으로부터 환율 관련 발언이 나와 시장참가자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전방위적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는 위안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며 절하압력을 받고 있다.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일간 원화와 위안화의 상관도는 0.8 까지 올랐다.

작년 한 해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원화는 위안화와 함께 약세 변동성에 노출됐고, 이 과정에서 원화는 관리환율제도인 위안화의 대용통화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위안화보다 약세압력을 더 키우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불거진 미-중 충돌 우려에 달러/위안(CNH)이 사상 최고치로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달러/원도 어김없이 상승압력을 키웠다. 이미 달러/원 레벨은 지난 3월 코로나 19 공포에 휩쓸렸을 때 레벨인 1240 원 수준으로 훌쩍 올라섰다.

▲ 변동성 관리에 이은 시장안정 발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 쏠림 확대시 시장안정화 조치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 국내 경기부진이나 외환수급 반영보다는 위안화 변동성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위안화 동조화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 외환 수장의 이같은 시장안정조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보이지만,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재차 확인된 데다 무엇보다 최근 외환당국의 시장 변동성 관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나온 발언인 만큼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A 은행의 외환딜러는 "확실히 당국이 이 환율 레벨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주 환율이 1240 원대로 올라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가자들은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강하게 추정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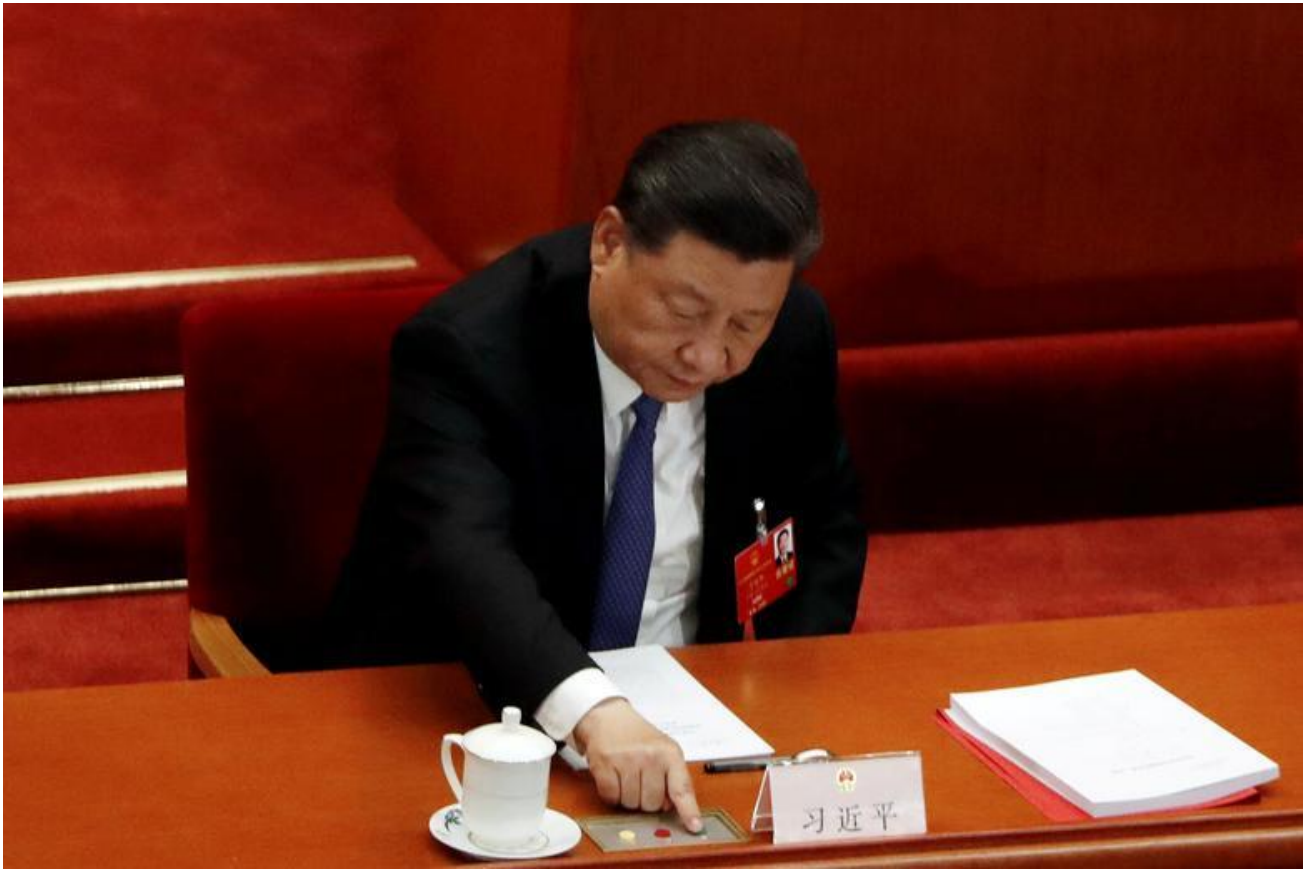
B 은행의 외환딜러는 "당국이 시장의 롱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1240 원대에서 두터운 저항력을 형성 중이다.

물론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이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가 반영되며 국내외 증시가 지지된 영향도 있지만, 당국 관리 여파가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은행 외환딜러는 "대외 여건이나 국내 수급 등을 고려하면 달러/원 환율이 하단을 점차 높여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환율은 상승 추세와 당국 경계감이 서로 부딪히는 흐름이 당분간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P 500 & investor sentiment

Individual investors have stayed bearish even as stocks have rallied

INVESTOR MOVEMENT INDEX



S&P 500 INDEX



Source: TD Ameritrade
Saqib Ahmed, Noel Randewich | REUTERS 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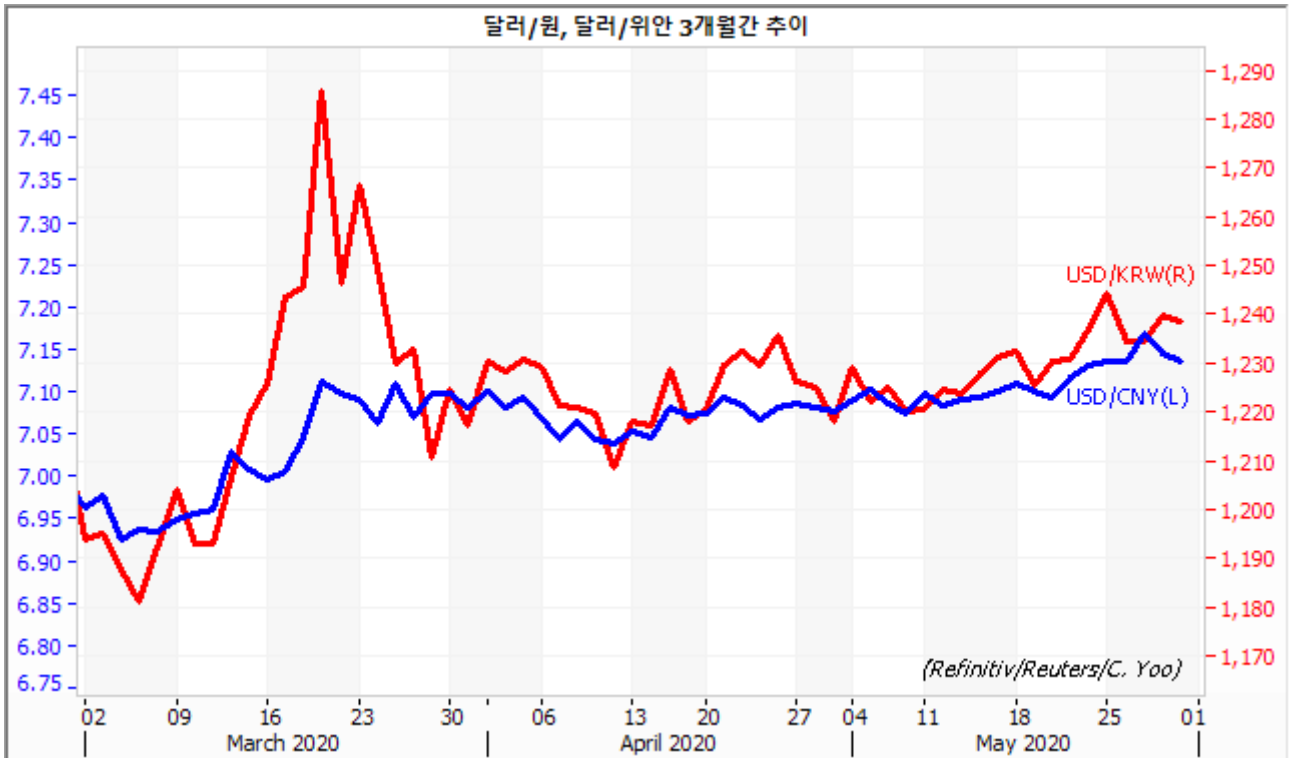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Wall St's largest companies increase their weight in the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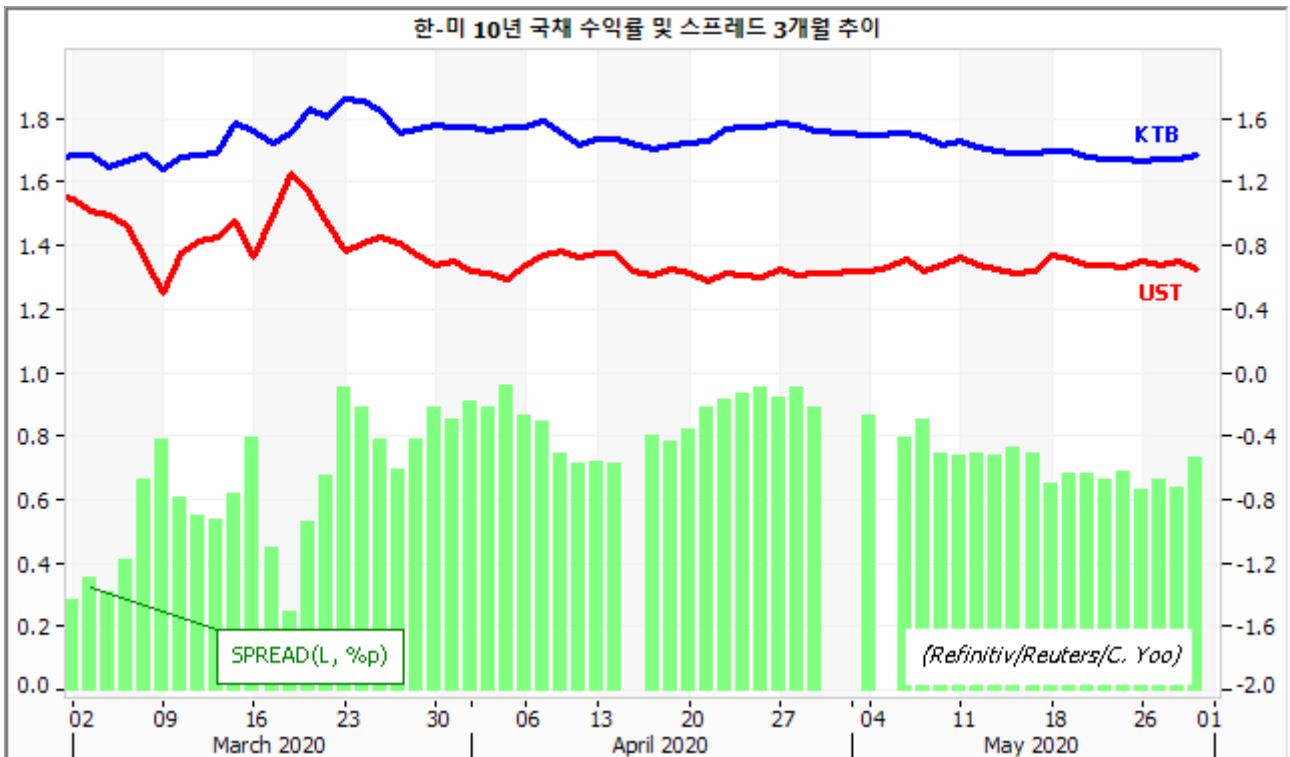
Microsoft, Apple, Amazon, Alphabet and Facebook dominate the index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